

# 상위 10% 집값 1년새 1억 올랐다

### 통계청 2018년 주택소유통계...소유 주택수 줄었지만 집값은 올라

### 서울 지역 10분위 비율 ↑...자산가액 12억 초과 가구, 집 4.27채 보유



지난해 주택 자산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소유 주택 수가 줄었지만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9억 7700만원으로 1년 만에 1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2억5600만원으로 전년(2억4000만원) 대비 1600만원 증가했다. 유주택 가구의 평균 주택 수는

1.36호로 2017년과 동일했으며 평균 주택면적도 약 26평(86.3제곱미터(m<sup>2</sup>))으로 같았다.

평균 가구주 연령은 55.4세로 전년 대비 0.3세 높아졌고 가구원수는 2.78명으로 0.04명 감소했다.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10분위별 현황을 보면 상위 10%(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9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원 증가했다. 불과 1년 만에 주택 가격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다만 10분위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 수는 2.59호로 전년(2.64호) 대비 감소했다. 소유 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평균 주택면적도 123m<sup>2</sup>(약 37평)로 2017년(125.5m<sup>2</sup>)보다는 감소했다. 10분위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56.3세였으며 가구원수는 평균 3.02명이었다.

상위 10% 가구의 소유 주택수는 줄었지만 상위 10%(1분위) 가구를 제외하면 모든 분위에서 주택 수가 전년 대비 같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분위 가구의 경우 평균 소유 주택수가 1.67호로 전년 대비 0.01호 증가했으며 주택 자산가액도 4억 3200만원으로 3200만원 올랐다.

마찬가지로 5~8분위 가구의 소유 주택수와 주택 자산가액도 모두 2017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유일하게 평균 소유 주택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1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0.9

호로 전년(0.97호)보다 줄었다. 두 가구가 주택 1호를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있어 평균으로 보면 1분위 가구가 주택 1호도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평균 주택면적은 62.2m<sup>2</sup>(약 19평)로 2017년과 동일했다.

주택 자산가액별 소유 주택수를 보면 자산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평균 소유주택수는 4.27호로 전년(4.83호) 대비 감소했다.

반면 가구 수는 21만8000가구로 2017년(16만5000가구)보다 5만 3000가구 늘었다.

자산가액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평균 소유 주택수는 2.27호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가구 수는 70만7000가구로 2017년(59만3000가구)보다 늘었다.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한 구간은 자산가액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간의 가구 수는 344만7000가구로 평균 소유 주택수는 1.11호였다.



## “이젠 페트병만 ‘따로’ 버려요”

쓰고 난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안이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 방안’을 19일 내놓고, 고품질로 재생되는 버려진 페트병을 현재 2만9000t(지난해 기준)에서 2022년까지 10만t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에서 주로 수입

택에서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를 실시한다.

내년 7월부터는 공동주택 등 분리배출?수거가 활성화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2021년에는 전국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색 있는 페트병과 접착라벨 사용금지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까지 시행하면 배출과 수거, 선별 등 모든

내년부터 분리수거장 별도 설치...日수입 대체  
유색 PET · 접착라벨 금지 더불어 재활용 촉진

하는 고품질 페트병 2만 2000t(연간)이 충분히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껏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들은 섞여서 배출, 수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과 먹인 색 페트병까지 구분없이 혼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 관련 업체와 논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거점수거 등 3가지 형태로 나눠 추진한다. 공동주택에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고, 단독주

단계에 걸쳐 페트병 재활용이 촉진되는 셈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선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업체에 지급하는 선별지원금을 선별품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를 전반적으로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30만t에 달하며,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23만6717t이 재활용되고 있다. 시트(Sheet)라고 불리는 고품질 원료로 다시 쓰이는 양은 대략 10%인 2만8601t에 불과하다.

뉴스1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벤츠·BMW 제쳤다”...텔루라이드, 美 전문지 ‘올해의 SUV’

한국 브랜드 SUV 사상 최초...9월 만에 4만5000대 판매  
세련된 외관 · 넓은 공간 · 첨단 기술력 · 합리적 가격 호평



기아자동차 북미 전용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텔루라이드’가 미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기아차는 세계 최고 자동차 전문지로 꼽히는 미국 모터트렌드의 ‘2020년 올해의 SUV’로 텔루라이드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모터트렌드는 1999년부터 21년 간 매년 연말 올해의 SUV를 발표해 왔으며 한국 브랜드의 자동차가 이 전문지로부터 올해의 SUV에 선정된 것은 역대 최하다.

2020 올해의 SUV 평가는 총 41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교 테스트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아 텔루라이드, 아우디

e-트론, BMW X5, 링컨 에비에이터, 링컨 커세어, 벤츠 GLS, 포르쉐 카이엔, 스바루 아웃백 등 8개 차종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이 중 텔루라이드가 2020 올해의 SUV에 최종 선정됐다.

텔루라이드는 지난 2월부터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서 생산되고 있는 북미 전용 모델이다.

세련되고 강인한 외관과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 기술력 3.8엔진을 탑재한 강력한 동력 성능을 갖췄으며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이 대거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출시 8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판매가 4만5284대에 달하는 등 미국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SUV 평가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은 깊이 있는 분석과 간간한 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각종 성능을 면밀히 테스트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단은 안전성, 효율성, 엔지니어링 우수성, 주행성능, 가치, 진보적 디자인 등 6대 요소를 기반으로 실차 테스트를 실시했다.

모터트렌드는 지난해 지프의 랭글러를 올해의 SUV로 선정할 바 있으며, 2018년 혼다CR-V, 2017년 벤츠 GLC 클래스, 2016년 볼보 XC90 등을 올해의 SUV로 선정했다.

5년만에 쌀 관세율 513%  
“국산쌀 보호수단 확보”

정부가 우리나라로 쌀을 수출하는 주요 5개국과 5년간의 협상 끝에 쌀 관세율 513%를 확정지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이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의 결과, 상대국들이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은 WTO 차기 협상까지 513%로 확정된다.

국가별로는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쌀 관세율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과 같은 추가적인 부담 없이 513%라는 안정적 보호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